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사업장 현장경영

“2030년 신사업 비중 25% 확대”

라이다 사업 본격화 아에바와 동행 레이더 투자로 자율주행 기술 강화 로봇 부품 협력, 보스턴 다이내믹스 차량용 반도체 모듈 시장 진출 가속 AI·우주·메디컬 등 미래 확장 청사진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최근 열린 사업장 현장경영에서 임직원들에게 미래 신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이노텍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미래 신사업 비중을 2030년 전체 매출의 25% 이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함께 달려 나가자”고 말했다.

30일 LG이노텍에 따르면 문 대표는 최근 사업장 현장경영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래 육성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미래 자산인 고부가원천기술과 글로벌 톱티어 고객들과 협력하며 체득해 온 사업 경험을 발판 삼아,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또 다른 일등 사업을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지난 2023년 말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문 대표는 줄곧 미래 신사업 확장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라이다(LiDAR) 사업 등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LG이노텍은 최근 라이다 기술 선도 기업인 미국 아에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라이다 사업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파트너십 일환으로 LG이노텍은 아에바의 초슬림·초장거리 FMCW(주파수 변조 연속파) 고정형 라이다 모듈 공

업이다. 이번 지분 투자로 LG이노텍은 차량용 4D 이미징 레이더, 초단거리 레이더(USRR) 등 고성능 레이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LG이노텍은 오는 2030년까지 모빌리티 센싱 솔루션 사업을 2조 규모로, 이를 포함한 AD·ADAS용 부품 사업(센싱·통신·조명)을 5조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다.

로봇용 부품 사업도 올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 로봇틱스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용 부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LG이노텍은 울초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이하 AP 모듈) 시장에 출시표를 던지며 기존 전장 부품사업을 차량용 반도체 분야로 본격 확대했다. 문 대표는 차량용 AP 모듈과 고부가 반도체 기반인 FC-BGA를 필두로 LG이노텍을 반도체용 부품 시장 ‘키 플레이어’로 새롭게 포지셔닝하여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문 대표는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및 로봇틱스는 물론, AI·우주·메디컬 분야까지 LG이노텍의 원천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고객과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는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거듭나는 것이 LG이노텍이 나아가고자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중,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착수

4만1000톤급 ‘앨런 셰퍼드함’ 입항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 SNS 앨런 셰퍼드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염포부두에 입항했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초 수주한 이 선박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고 안전장비·설비 점검과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필리핀 현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 필리핀에 인도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 HD현대미포의 도크와 안벽을 활용해 해외함정에 대한 사업 수행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선사업대표는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 고객인 미 해군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운 기자 dhalehdhale@

포스코인터, 여수광양항 LNG 공급망 협력

2027년 1만2500㎥급 전용선 투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9일 포스코플로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여수광양항 액화천연가스(LNG) 병커링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해운업계의 저탄소 연료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여수광양항 권역 내 선박연료용 LN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사는 광양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LNG 병커링 선박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해 LNG 추진선박 연료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6년 완공 예정인 광양 LNG 제2터미널의 저장탱크와 병커링 전용 부두를 활용해 LNG 조달부터 병커링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 운영

주체로서 안전성 검토와 제도 지원을 담당하고, 포스코플로우는 선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인도 예정인 1만2500㎥급 LNG 병커링 선박의 건조 및 운영을 맡는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로 LNG 추진선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2022년 말 354척이던 LNG 추진선은 2027년까지 778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병커링 시장 역시 글로벌 선사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수광양항은 연간 6만5000척의 선박 입항과 2억1300만톤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며 아시아·태평양 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일본 3대 해운사를 비롯한 글로벌 선사의 병커링 잠재 수요도 확인된 상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제1·2터미널을 합쳐 총 133만㎥ 규모의 국내 최대 LNG 저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1등급 가전’ 판매 두 달간 20% 증가

환급사업에 소비자 수요 확대

삼성전자의 고효율 가전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판매가 정부의 ‘옴표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옴표가전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옴표가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옴표가전사업에 발맞춰, 에너지를 절감하는 혁신 AI 기능을 갖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선보이는 한편 옴표가전사업에 대한 고객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해 고효율 가전 제품 확대에 적극 동참해왔다.

최대 30만원의 정부 환급 혜택과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최대 10%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등 다양한 구매 혜택에 더해 고효율 가전 구매로 인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소비자 수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차현정 기자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 전환·승급 기준 그대로 보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 전환 비율 1대1, 제휴는 0.82 적용 우수회원 등급 자동 매칭 등 보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기한 역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9월 30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 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고객 역시 마일리지로 아시아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고객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사용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을 기업결합일(지난해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1대 0.82의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량 전환만 허용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 중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 안에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또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플러스(명성) ▲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 ▲다이아몬드 ▲골드)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우수회원 자격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트롬 AI 라인업 확장 나섰다

대용량 세탁·건조 성능·편의성 강화 AI DD모터·타임센싱으로 효율 높여

LG전자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세탁 가전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LG전자는 ▲트롬 AI 세탁기(25kg) ▲트롬 AI 건조기(25k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위시타워(세탁·건조 23kg) ▲트롬 AI 위시콤보 콤팩트(세탁 11kg·건조 6kg)를 순차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는 세탁·건조 과정을 제어하는 AI 기술로 신제품들의 성능과 편의성을 높였다. 핵심 부품과 AI가 결합된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오염도, 세탁량을 분석해 6가지 모션 중 최적 모션을 적용, 옷감 손상을 줄인다. ‘AI 타임센싱’과 ‘AI 시간 안내’ 기능은 세탁·건조 시간을 정확히 안내해주며, 도어를 닫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 On’ 기능은 조작 과정을 단축한다.



LG전자가 AI 기능을 갖춘 다양한 세탁 가전을 선보인다. /LG전자

위시타워 신제품은 세탁·건조 모두 23kg 대용량이다. 세탁 후 별도 분리 없이 그대로 건조기로 옮겨 사용할 수 있으며, 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위시콤보 콤팩트는 기존 대비 크기를 줄여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하단 미니워시(2.5kg)를 통한 소량·분리 세탁 역시 지원한다. 세탁기·건조기 신제품은 국내 최대 25kg 용량으로 겨울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